15년 만의 특별구족계…'전법도생' 다짐

조계종, 3~5일 통도사서 수계
20년 이상 구족계 받지 않은
사미 42명 · 사미니 13명 동참
총 대상자 140명 절반 못 미쳐

양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특별법 제정으로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계종으로 출가해 사미·사미니계를 받고도 20년 이상 지나도록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을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5년 만에 봉행됐다.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승 단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총 대상자 140명 규모에 비해 참여인원이 55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8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입재식에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수계를 통해 이루어진 청정계체를 훼손치 않고 대중이 모여 화합승가를 구성하여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하는 일은 불조의 혜명을 길이 전승하는 소중한 일이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화합승가를 소중히 여기시어 '무량한 수의 아라한보다 하나의 화합승가가 중요하며, 화합승가가 유지되면 정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라' 하셨다"고 수행과 화합을 강조했다.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또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전국 각 사찰에서 발심 출가한 수계제자들이 오랜 세월 불법문중에 선근인연으로 세속의 온갖 장애를 여의고 신심과 원력으로 모였다. 지금 계단 아래 엎드려 큰 서원을 발하옵고 부처님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하오니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고불문을 올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수계제자 여러 스님들은 앞으로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과 부처님의 부촉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며 "계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위상을 정의롭게 하고 스스로 정행의 몸가짐으로 오로지 계를 생명으로 하여, 번뇌와 무명의 장애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여구두연(如救頭燃)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수계대법요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계를 받는 제자들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 정진할 것을 발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며 "또한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 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특별구족계에는 사미 42명, 사미니 13명 총 55명이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전법도생을 위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했다.

안성 칠장사 "자승 대종사 전법 유훈 계승"

추모다례 · 박문수체험관 기공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해
칠장사 지역사회 나눔 실천
지강 스님 "최선 다해 전법"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원력을 다지는 모습.

지난해 11월 29일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원적에 든 안성 칠장사에서 '부처님 법 전하자'는 사부대중의 다짐이 울려 퍼졌다.

칠장사(주지 지강 스님)는 3월 3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자승 대종사가 소신공양하며 전소된 요사채를 복구하는 의미를 담은 '칠장사 비전 박문수체험관' 기공식도 겸해졌다. 칠장사는 어사 박문수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던 중 하룻밤을 묵으며 불공을 올려 장원급제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교신문사장 오심 스님,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인도순례에 동참한 이규민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다례재에서 "(자승) 큰스님께서 우리 사제는 무엇으로 포교를 하시려는가 물으셨을 때 마음의 준비는 돼 있지만 공력이 부족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오늘은 부처님 법 전하자는 원력을 실천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모든 분께 기쁨을 드리는 칠장사 주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동국대와 국립 한경대에 장학금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하고,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승려복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안성시에는 쌀 10kg 800포를 기부하며 자승 대종사와 약속한 포교에 앞장섰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자승 대종사 영전에 게송을 지어 바치면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하자. 이것이 스님의 기본 자세이자 부처님의 부탁"이라며 "자승 대종사는 수행과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수행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추모했다.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역시 "자승 대종사의 역할로 한국불교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종단사에서 후학들이 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며 "한 세상 태어났다 가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 사부대중은 불문에 들어와 자승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성=윤호섭 기자

6대 총림, 6월까지 1차 실사 나선다

총림실사특위, 총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조사

조계종 6대 총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총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가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는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전국 총림 실사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지난 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구성이 결의된 총림실사특위는 위원장 재안 스님을 비롯해 도성·덕현·설암·태진·탄웅·현무·각진·성제·성원·혜도 스님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총림실사특위는 첫 회의에서 성원스님을 간사로 선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6대 총림에 대한 1차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실사는 위원 전원 참석을 전제로 하되 최소 8인 이상이 함께 움직인다. 총림실사는 총림의 자격요건인 강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총림 구성원들이 느끼는 총림 운영실태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출가자 급감으로 인해 총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실태조사를 통해 총림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일깨워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비구니회, 2000여 장병에 수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서
수계 법회…후원금 전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불자 훈련병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에서 회장 광용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광용 스님은 법문에서 "수계를 받은 에너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호법신장과 불보살이 장병들을 옹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병들은 전국비구니회 스님과 조계종 포교사단 충남대전 지역단의 연비 의식 도움 속에서 참불자의 삶을 서원했다.

법회 후 광용 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후원금 2500만원을 전달하며 수계법회 활성화를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운문사총동문회, '천년을세우다' 동참

불사 기금 1000만원 기탁



비구니스님들의 교육도량인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석우 스님)가 4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세우다'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총동문회장 석우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 연수를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의 법문을 해주신 총무원장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이 법문을 긍정적으로 받아줘 다행"이라며 "내용을 보완해 더 좋은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